

순천만정원박람회 추석 연휴 기간 100만명 몰렸다

누적 관람객 780만명 달해... 목표 관람객 800만명 돌파 눈 앞 입장권 판매 등 자체 매출 28억원... 인근 맛집·상점 매진 행렬

추석 연휴 기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목표인 800만명 달성을 코앞에 두게 됐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석 연휴에 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100만8917명으로 집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개막한 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780만명을 돌파했다. 이달 마무리하는 정원박람회는 목표 관람객을 800만명으로 세웠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지난 30일에는 역대 최대 일일 관람객인 21만5828명을 기록했다.

연휴 기간 20만명대 일일 관람객은 사흘 연속 지속했다.

6일간 관람객을 하루씩 보면 9월28일 6만1826명, 29일 19만1140명, 30일 21만5828명, 10월1일 20만9964명, 2일 21만4674명, 3일 11만5485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원박람회의 흥행은 순천 전역으로 퍼졌다.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3일) 순천지역 주요 관광지를 다녀간 관광객 수는 112만명에 달했다.

박람회 최대 관람객 기록을 세운 지난 30일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람회 성공 덕분에 올해 순천을 찾은 관광객 수는 10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5만명)보다 177% 증가했다.

100만 관람객을 끌어모은 정원박람회는 행사장

안쪽에 경제 효과를 퍼뜨렸다.

연휴 기간 박람회 입장권 판매 등 자체 매출액은 28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이다.

박람회장 안에 있는 식음료장은 물론이고 인근 맛집과 상점 등은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지역 상인들은 추석 황금연휴 도안 매출액이 평소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뛰었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전통을 지닌 순천 옷장 국밥골목은 점심시간이면 식당 밖으로 30m 넘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최장 6일의 연휴를 맞아 순천에 '머무르는 관광'을 택했다.

연휴 3지구에 있는 숙박시설은 연휴 기간 모두 예외 없이 만실을 이뤘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 오천그린광장 인근 카페는 최대 4배 넘는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페는 오천그린광장·그리아일랜드에서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소풍 꾸러미'를 만들어 빌려주고 있다.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김연우, 이승환, 트랄라라브라더스 등 인기 공연을 열어 매일 7만명 넘는 방문객을 기록했다. 6만평(19만8347㎡)에 달하는 잔디밭에는 구름 관중이 몰렸다.

올해 정원박람회가 새롭게 마련한 정원드림호는 이 기간 평균 탑승률 95%를 나타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머무르며 식도락을 즐기는



추석 연휴(6일)에 100만 관람객을 기록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구름 인파가 몰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숙박시설 '월랑계'는 모든 객실이 매진되기도 했다.

이달 마무리하는 정원박람회 안팎에서는 굿직한 문화·예술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7-9일)과 남도영화제

(11-16일), 순천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13-15일), 40회 순천팔마문화제(13-14일), 전남엠펙스페스티벌(27-29일) 등이 순천 곳곳에서 펼쳐진다.

노래구 순천시장은 "긴 연휴를 대비해 정원과 공

연·행사 완성도에 신경을 썼다"며 "연휴 100만 관람객 돌파는 시장과 공직자, 시민 등 삼합(三合)이 잘 맞았던 덕분이다. 폐막일까지 박람회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천년고찰 화엄사 가을축제... 6~8일 화엄문화제

걷기 대회·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패불 이운 행사 일반인 첫 참가도

1500년 역사를 지닌 구례 화엄사에서 오는 6-8일 화엄문화제가 펼쳐진다.

'천년의 화엄, 전법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는 비건버거 맛보기, 걷기 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오는 6일에는 화엄문화제 개막행사로 범정스님의 걷기대회 '구례 사찰 명상순례길'이 진행된다. 식전공개행사로 지울스 건강 맨스가 마련됐다.

사성암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천년 섬진강길, 두꺼비다리, 대숲길 돌아오는 이 대회에는 구례군민 500여명과 화엄사 홈페이지 참가 접수한 5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에게 기념 티셔츠와 점심공양이 제공된다.

보재루 앞마당에서는 국보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 '이운과 괘불재'가 진행된다.

괘불재는 춤과 음악, 의식 등으로 구성된 축제 행사로 1년에 한 번 괘불을 직접 보고 공양을 올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괘불 이운에는 일반인 6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괘불 이운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엄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숨을 불어 소리를 만들고, 손으로 소리를 만드는 작은음악회'가 보재루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테너 신상근, 바이올린 김소정, 첼로 박건우,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이 출연한다.

7일에는 각황전에서 화엄사의 근현대 중장조인 이산당 도광 대선사 원적 39주기와 도전당 도전 대종사 원적 12주기 추모제가 진행된다.

이후 보재루 특설무대에서 화엄문화제 백미 화



구례 화엄사에서 오는 6~8일 '화엄문화제'가 열려 걷기 대회와 괘불재 등이 진행된다. 고즈넉한 화엄사의 가을 풍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엄음악회가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의 특징은 퓨전 국악이다. 소리 장사익·김주리, 비파 노장청, 정가 하운주, 서도밴드, 대금 이상현, 2023 사랑-인도 문화축제 인도고전무용팀, 상월결사 청년합창단, 상월청년회 비보이가 출연한다.

8일에는 화엄사 원로 종설종사 49명과 흥보대사 마리엘과 함께하는 제3회 어머니의 길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화엄사 보재루 특설무대에서 출발, 연기암까지 왕복하는 코스다.

연기암에서 성각스님의 화엄사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참가자는 200명이며, 일반인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선착순 50명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티셔츠가 제공되며, 걷기 대회 후에는 화엄사 공양간에서 저녁공양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연기암에서 하산한 후 추모비 앞에서 6-25전쟁 때 화엄사를 지킨 차일혁 경무관 추모식에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 화엄사 비건버거 시식과 출시, 화엄사 자일리틀 스톤 출시 행사도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사찰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며 "화엄사는 모든 중생이 함께 살아가는 동업중생(同業衆生)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6~7일 '섬진강 생태 판소리 한마당'

동약아트홀·미실란

곡성군이 오는 6-7일 동약아트홀과 미실란에서 '3회 섬진강 생태 판소리 한마당'을 연다.

곡성 판소리 한마당은 지난 2021년 가을 열린 뒤 올해 세 번째 치러진다.

곡성군이 주최하고 창작집단 '짜목짜목'이 행사를 주관한다. 올해 판소리 한마당은 생태의 중요성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 기간 들뜬 판소리 공연과 창작 소리극 '향기장수 이야기', '이삭단의 대모험' 등이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사부작당의 어린이 소리극 '향기장수 이야기'를 상영하고, 7일에는 곡성풍물

단의 공연과 짜목짜목의 소리극 '한음초 지구수비대 이삭단의 대모험'이 펼쳐진다. 이어 전통 판소리가 무대에 오르고 창작 판소리 '약속나무'가 초연한다.

소설가김탁환 사설(齋說)의 '약속나무'는 곡성 죽곡면 삼태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고목이 어떻게 생명을 마무리하는지, 그리고 그 고목의 정신이 어떻게 마을에 남아 전해지는지 깊이 탐구한 작품이다.

'3회 섬진강 생태 판소리 한마당'은 오는 6일에는 오전 11시, 7일에는 오후 6시 10분에 진행된다. 관람료는 모두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판소리 한마당 기획팀(010-7372-2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고흥·녹동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마무리

40년 넘은 고흥과 녹동 버스터미널이 새로 단장했다.

고흥군은 고흥·녹동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두 버스터미널은 모두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고흥군은 버스터미널의 운행 시간표를 새로 정비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불러 대청소와 내부 도장공사를 했다.

녹동 버스터미널의 경우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오래된 상가 시설을 개선했다. 이곳 매표소를 새로 단장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 정비도 했다.



새로 단장한 고흥 버스터미널 모습.

고흥군은 그동안 버스터미널에 남아 화장실을 새로 짓고 택시 승강장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여수엔' 운영 활성화 박차

6월 출시...여수관광 원스톱 서비스 음식점·숙박업소 등 가맹업소 모집

여수시가 스마트관광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작한 통합 플랫폼 '여수엔'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밤바다와 해양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4차산업시대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운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관광은 스마트 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등 스마트 통합플랫폼 고객의 경험과 편의를 위한 5대 요소를 담았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다가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여수엔' 통합 플랫폼을 출시했다.

현재 시범서비스 기간으로 음식점, 숙박, 관광지, 특산물 쇼핑몰 등 다양한 가맹업소를 모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스마트 음식점으로 가입되면 '여수엔' 내에 음식점 정보가 무료로 등록되며, 맛집으로 검색돼 주변 맛집을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시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어 음식점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엔'은 스마트폰 앱을 열자마자 여수의 관광지, 숙소, 음식점, 편의시설, 교통 안내 등의 정

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거나 맛집 등을 한눈에 보면서 고를 수 있는 데다 모바일 사전 예약 및 비대면 현장 주문이 가능하다. 간편 결제도 할 수 있다.

여행 추천지, 관광지 안내, 특산물 쇼핑, 짐 배송 및 보관, 편의시설, 리뷰, 지도 등을 안내하는 버튼이 쉽게 노출돼 있으며, 여행 중 불편한 점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한다.

김상욱 여수시 관광과 팀장은 "스마트관광은 이해 당사자 등 거버넌스의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 홍보가 이뤄지고 사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앞으로 여수엔을 통해 착한 공급과 착한 소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대학교 3곳 재학생 1만3091명

순천시 '천원의 아침밥' 제공

순천시가 지역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침식사는 순천대, 제일대, 청양대 등 순천지역 대학교 3곳에 제공된다. 이들 대학 재학생 수는 1만3091명이다.

순천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아침 식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아침 17kg당 2000원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1000원만 부담하면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순천시는 학교마다 최대 100명의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추후 지원 대상을 더 늘릴 방침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진상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광양시 16일까지 공개 모집

광양시가 국공립 진상어린이집(진상면 섬거리길 5-14)을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5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진상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내년 2월28일 만료한다.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광양시 아동보육과 보육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위탁 운영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 능력과 재정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운영자(운영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위탁 운영자(체)는 내년 2월29일부터 앞으로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